



## 플라이트 셰임

플라이트 셰임(Flight-shame)이란 “부끄러운 비행”을 뜻하는 말이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기후 변화에 민감한 스웨덴에서 2017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지금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적지 않은 성인과 청소년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문화화 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운송수단 중 유독 비행기의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비행기가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시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하는 동안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85g이다. 이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출처: “비행기 대신 열차나 배를” 유럽에 유행처럼 번지는 ‘플라이트 셰임’ (『서울신문』, 2019. 10. 3.)



생각하기

## 이것 없이도 살 수 있어?

1. 내가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제품을 고르세요.
2. 그것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을 생각한 후, 적어 보세요.



실천하기

## 알기쉬운 분리수거 방법



### 1. 플라스틱 병

- ① 안에 있는 내용물은 모두 버려요.
- ② 붙어 있는 비닐 라벨을 떼어요.
- ③ 병의 부피가 작아지도록 찌그러뜨려요.
- ④ 투명한 병과 색이 있는 병을 분리해 지정된 분리함에 넣어요.



### 3. 종이팩(우유 · 두유 · 주스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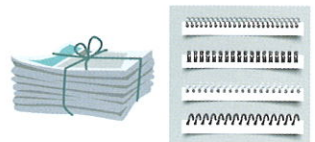
- ① 안에 있는 내용물은 모두 버려요.
- ② 물로 한 번 헹궈요.
- ③ 잘 말린 후, 일반 폐지와 함께 버려요.

### 2. 택배 상자



- ① 테이프와 송장 등 박스에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요.
- ② 다른 이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접은 후, 분리함에 넣어요.

### 4. 신문 · 책자류



- ① 책이나 종이에 섞인 스프링, 플라스틱은 제거해요.
- ② 종이만 따로 묶어 일반 폐지와 함께 버려요.